

## “남북 합의 이행, 미국은 간섭 말라”

### 6·15 공동선언 발표 19주년 민족자주대회 열어 ...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판문점 선언 이행 촉구

“개성공단은 지난 14년 동안 평화를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개성으로 다시 가야 합니다. 가서 북의 노동자들을 만나야 합니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6월 15일 서울 광화문 북쪽광장에서 ‘6·15 공동선언 발표 19주년 민족자주대회’를 열고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촉구했다. 이날 6·15 남북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창복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은 대회시를 통해 “6·15 공동선언은 남북이 서로의 체제와 제도를 존중하는 통일을 이루자는 청사진을 제시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창복 상임대표 의장은 “미국은 지금 싱가포르 북미 공동선언을 외면하고, 남북 간 합의 이행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창복



의장은 “어떠한 동맹도 민족을 앞설 수 없다.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당사자는 남과 북, 온 겨레이다. 남북 당국은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지난 2월 개성공단이 품고 있는 평화와 인본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 하원을 방문한 이종덕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연대사에서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재가동은 한반도 비핵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

였다. 이종덕 부회장은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시설 점검을 위해 개성으로 가야 한다”라며 정부에 방북 승인을 촉구했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족공동위원회는 “역사적인 남북선언들의 기치 밑에 굳게 단결하여 오늘의 시련과 난관을 뚫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앞당기자”라고 함께 결의했다.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미국 대사관을 에워싸는 ‘평화의 손 잡기’ 행사를 벌였다. 광화문 광장을 출발한 참가자들은 손을 맞잡아 미 대사관을 둘러쌌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지만 참가자들은 이랑곳하지 않고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판문점 선언 이행,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구호를 외쳤다.

## 노동자가 백기완 선생에게 발 달아 주다

### 금속·현대차지부·공공운수노조 활동가 십시일반 ... “노동해방 세상 만드는 데 힘쓸 작정”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와 공공운수노조 활동가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백기완 선생께 자동차(쏘나타)를 드렸다.

이 활동가들은 6월 14일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을 모시고 ‘백기완 선생님, 새 차 타고 이북 고향 가셔야죠!’라는 이름으로 차량전달식을 열었다. 백기완 선생님, 김호규 노조 위원장,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과 노동, 시민사회단체인 회원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백기완 선생은 “고마워 목이 메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주머니를 털어 자동차를 마련해준다고 해서 앉아서 받을 수 없었다”라고 감격에 겨워했다.

백기완 선생은 “돈이 아닌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게 통일이다. 수명이 다 되어 죽을 때 죽더라도 사람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힘쓰겠다”라며 “오늘 받은 자동차로 현장에 다니기 쉬워졌다. 노동

해방 세상을 만드는 데 끝까지 힘쓸 작정이다”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전달식에서 “하나의 노조를 넘어 여러 단위 활동가들이 힘을 모아 차를 준비했다. 백기완 선생님의 말씀대로 벽돌 한 장 쌓듯 차를 마련한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노동자가 피땀 흘려 만든 차를 노동자 민중의 마음을 다독이는 어른에게 기증하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